

역사와 생태를 한눈에...나주시 '남평향교 순례길' 개통

월현대산 근린공원~남평향교~남평강변 잇는 1.5km 구간 산책로 역사탐방·향토마을·산림휴양길 등 3개 구간...쉼터 3곳도 조성

나주 남평향교의 역사 자원과 해발 119m 월현대산의 자연 생태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1.5km 구간 산책로가 최근 개통됐다.

나주시는 남평읍 월현대산 근린공원과 남평향교, 남평강변도시를 잇는 '남평향교 역사순례길' 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길에서는 드들강과 나주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나주시는 생태 공간과 역사 자원을 하나의 녹지축으로 연결해 남평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도비 50%, 시비 50%의 비중으로 총사업비 8억 3000만원을 들었다.

'역사순례길'은 역사탐방길, 향토마을길, 산림휴양길 등 3개 구간으로 나뉜다.

이 길은 월현대산 근린공원을 시작점으로, 강변도시와 남평향교로 각각 연결된다.

숲 지형에 따라 374m의 나무갑판 길과 801m의 야자매트 길이 놓였다.

방문객들은 쉼터 3곳과 월현대산을 상징하는 경관조명시설을 만날 수 있다.

남평 월현대산 근린공원은 산림청 산림공원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인공폭포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지난 2019년 조성됐다.

공원은 인공 폭포와 잔디광장, 정원, 야외무대 등을 갖췄다.

소나무와 자산홍, 핑크몰리 등 3만2000주에 달하는 수목, 화초류가 우거졌다.

경사가 완만하고 도심 속에 있어 해맞이 명소로도 인기를 더하고 있다.

남평향교는 조선 세종 9년(1427)에 세워진 교육기관으로 대성전, 명륜당 등이 있으며 1985년 전남도 유형문화재(126호)로 지정됐다.

소실과 몇 번의 중수를 거쳐 지난 2011년 8월에 대성전과 명륜당을 새롭게 단장한 뒤 600여 년 만에 중수비 제막식을 열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남평향교 역사순례길은 역사와 생태 자원의 연계를 통한 교육·체험 공간이자 일상을 벗어나 자연 속 휴식이 가능한 숲길로 조성됐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광주 남구, 화순 방면 나주의 관문인 남평읍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나주시 남평읍 월현대산 근린공원과 남평향교를 잇는 '역사순례길' 산책로가 최근 개통됐다.

(나주시 제공)

화순군 '전국 최대' 결혼장려금 1000만원 158쌍 신청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 6억여원 지급...5년 분할

화순군은 '전국 최대' 수준의 결혼장려금 지급을 시행한 이후 158쌍의 신청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화순군은 지난 2020년 3월10일 관련 조례를 시행한 뒤 혼인 신고 1년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58쌍의 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 6억1400만원의 결혼장려금이 지급됐다.

화순에서 혼인 신고를 한 뒤 1년이 지나면 10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관련 조례 시행일인 2020년 3월10일 이후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신고한 부부이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혼인 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혼인 신고 당일 전일 신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 결혼장려금 1000만원은 전국 최대 수준이다. 혼인 신고 1년 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분할 지급된다. 화순군은 결혼장려금 1차분 신청 기한을 잘 확

인할 것을 당부했다.

신청 기한은 신청 가능일부터 36개월까지이다. 예를 들어 화순군 결혼장려금이 시행된 2020년 3월10일 혼인 신고한 부부의 1차분 신청 기한은 2021년 3월10일부터 2024년 3월9일까지이다.

장려금은 신청 기한 안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누리집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인구정책팀과 인구정책팀(061-379-3258)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담양군 공장 화재보험료 500만원까지 지원

담양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은 연중 공장이 있는 읍면 사무소나 담양군 투자유치단을 찾아서 할 수 있다.

담양군은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와 배상 책임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지난해 2억3000만원을 투자해 138개 기업에 화재보험료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담양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적합하

게 등록이 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체이다.

대상 보험은 올해 가입 유지 중인 화재보험으로 업체당 1개 보험에 한정한다. 지원 금액은 공장 화재보험료의 최대 50%,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금액대별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업의 화재로 인한 경영 피해 방지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함평읍 전통시장 인근에 29대 규모 주차 공간 조성

함평군은 최근 함평읍 전통시장 인근에 29대 규모 주차 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고 14일 밝혔다.

함평 시가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함평군은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했다.

지난해에는 함평읍 하나로마트, 자판어린이집 인근 유휴지에 220면 규모 주차 면적을 확보했다.

지난해부터 인도 위 주차가 1분도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주차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함평군은 근본적으로 주차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읍뿐만 아니라 면 단위 소재지에도 유휴지나 자투리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함평읍 전통시장 인근에 마련된 주차 공간.

(함평군 제공)

장흥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장흥군이 오는 26일부터 1년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무주택자가 신청 대상이다.

장흥군은 대상자에게 내는 임차료 가운데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장 12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복지포(bokjiro.go.kr) 또는 읍·면 행

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할 때 월세지원 신청서와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월세 이체 증빙서류, 청약통장사본 등을 갖춰야 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새롭게 단장을 마친 정남진 어린이과학관이 오는 20일 다시 문을 연다. 어린이들이 '그래픽 모션'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장흥군 제공)

정남진 어린이과학관 새단장 20일 재개관

숲 놀이터·별빛 숲 등 4개관 구성

정남진 어린이과학관이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오는 20일 다시 문을 연다.

장흥군은 지난해 9월 준공해 시범 운영해온 정남진 어린이과학관에 대한 시설물 보강을 마치고 재개관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남진 어린이과학관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한다.

작은 압력 등반과 씨앗 관찰, 움직임 관찰 등을 할 수 있다.

편백숲 우드랜드 인근에 있는 어린이과학관은 1-2층 상설전시관으로 구성됐다.

호야의 숲 놀이터, 다람이의 꽃나무숲, 반달이

의 별빛 숲, 너피의 땅속 동물 등 총 4개관으로 꾸며졌다.

이곳은 디지털 자료를 갖추고 인지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매주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은 휴관한다.

방문객들의 원활한 관람을 위해 하루 3회씩 입장을 제한(1회당 보호자 포함 150명)해 운영할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정남진과학관은 미래 꿈나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매주 월요일 아침 읽을만한 책 알려 드립니다

강진군도서관 '아침독서 알림톡'

강진군 도서관이 매주 월요일 카카오톡을 활용해 읽을 만한 책을 권하는 '아침독서 알림톡'을 오는 18일부터 진행한다.

'아침독서 알림톡'을 신청하면 매주 월요일 아침 모바일 알림톡을 통해 국내외 인기·신간 도서의 줄거리를 받아볼 수 있다.

강진군은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최신 도서 동향을 제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마련했다.

출판권 시간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오디오북'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침독서 알림톡은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 이용할 수 있다.

강진군은 7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알림톡을 받아보고 싶으면 강진군 도서관 누리집(jilib.go.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신석 강진군 도서관장은 "이 서비스가 책 읽는 시간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지식에 더 쉽게 접근하고 즐겁게 만들어 독서문화를 조성하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도서관이 앞으로도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군 무허가 주택 30동 건축물대장 등재

행정복지센터서 29일까지 신청

장성군은 올해 신규 시책의 하나로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 문제를 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장성지역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다.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은 지역민 재산권 행사나 수해 관련 지원사업 신청 때 생

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재 대상은 ▲2006년 5월9일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바닥면적 합계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완공된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이다.

장성군은 자체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입해 30동에 대한 등재를 먼저 시행한다.

수요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등재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달 29일까지 하면 된다.

장성군은 관련 법을 검토한 뒤 다음 달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사업대상자는 건축물 현황측량 성과도 등을 첨부해 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061-390-7473)으로 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그간 건축물대장이 없어 각종 혜택과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